

## 20대 총선 70여일 앞

# 위기 실감 현역의원들

### 도내 11명 중 4명 예비후보 등록 일찍 마쳐 국민의당과 경쟁 예고돼 마음놓을 수 없어

올해 4.13 제20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의 위기가 이 작용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역의원들은 이른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채 총선 20일전인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에 등록하는게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 굳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도내 정가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도내 의원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것을 두고 신당 바람으로 인한 위기감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일 현재 11명 의원 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현역 의원은 3인의 김춘진(부안김제), 이춘석(익산 갑), 강동원(남원순창), 박민수(무진장암실) 등 4명.

이들 지역구 모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1월14일 예비후보에 등록, 가장 빠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무진장암실은 선거구재획정으로 지역구가 유통적인 상황이며 같은

당 소속 안호영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으로서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만 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구도에 돌입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한수, 고상진, 정재혁, 배승철 등 본선도 힘겨운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28일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남원 순창은 새누리당 2명, 같은당 1명, 국민의당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 난립한 곳이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27일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최규성 의원과의 경합도 문제지만 국민의당 김중회 예비후보의 바람도 만만치 않다. 김중회 예비후보는 유성열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식에서 김중회 예비후보를 자신의 열지라에 앉히는 등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3일 출마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등 서둘러 조기 등판에 나서고 있다.

사실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 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른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보좌진 및 지역구 사무소 인력이 10명 이상에 지방의원도 사실상 선거운동원 활용도 가능하다.

반면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최대 3명고용, 명함 배부, 홍보물 배포 등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유권자의 10분의 1 세대에 한해 홍보물을 1회 보낼 수 있고 이마저도 5회로 제한돼 있다.

무엇보다도 예비후보자의 경우 명함 돌리기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지만 이마저도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며 건네는 형식 외에 불특정 다수가 원래 하거나 집합하는 공개 장소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등 제약이 많다.

이처럼 현역의원이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유리한 상황인데도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의정활동보고서와 지역 행사 참석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낀 탓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당과의 치열한 본선 경쟁이 예고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된 현역 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버리고라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민심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신광영 기자



반짝 한파가 이어지면서 진안군 미이산 탐사에 놓인 정화수에 하늘 방향으로 고드름이 솟는 '역 고드름'이 피어올랐다. 2일 군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미이산 탐사에 거꾸로 지라는 역고드름 5개가 만들어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 '설 우편물 산터미 밤낮이 따로 없구나'

### 6일까지 특별처리기간 운영 전북우정청 비상근무 도입 직원들 물류센터에서 구슬땀



전북우정청이 혹한과 밤낮을 잇은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한 전북우정청이 우편물 소통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처리한 우편물은 66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편물이 최대로 폭주한 1일의 소포우편물은 총 8만여 건으로 평상시 처리물량의 4배 수준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전북우정청은 특별처리 기간 중 소포 처리 물량을 10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우정청 직원들이 전주물류센터에서 설 우편물 특별처리에 나서고 있다. 전북우정청은 특별처리 기간 중 소포 처리 물량을 10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물류센터에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할 이유다.

김병수 청장은 "선물 택배 등 우편물이 폭주하는 만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고객들의 우편물

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경제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인형 기자

## 전주시 서기관급 보직인사 마무리

### 정태현 덕진구청장 등 8명

전주시는 2일 정기간사를 단행 서기관(국장)급 8명의 보직인사를 마무리했다.

정태현 문화체육국장장은 신현택(공로연수) 덕진구청장의 자리를 이어 받았다.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의 명예 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전북도에서 전주시로 진출 온 이철수 서기

관을 발령했다.

복지환경국장장은 우종상, 사회경제제지원단장은 박선이, 맑은물사업본부장에는 은희영 서기관을 발령했다.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는 4급 서기관으로 직급 승진, 교육대기 발령을 받았다. 최라기 복지환경국장장은 문화체육국장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 3면 국민의당 창당 총선 3각경쟁 치열

국민의당이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공식 창당, 4.13 총선은 3각 구도속에서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7면 '고액알바' 했다간

최근 근교한 취업준비생 등이 조직적 보협사기에 가담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